



코로나 이후의 자산배분(요약)

1. 코로나19 이후 트렌드 변화

- 2020년 구글트렌드를 보면, 투자와 관련된 검색이 크게 증가. Stock, Bitcoin, ETF, ESG, IPO 등의 검색 크게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직접투자 증가. 특히 한국과 미국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주식 시장 참여

2.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

- 저금리 심화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식 투자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음
-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퇴직연금에서는 주식자산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

3. 자산가격 상승은 주식투자 필요성 확대시킴

-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은 종잣돈을 만들기 위한 필요성을 증가시켜서, 주식 투자에 대한 수요를 늘림
- 저금리 심화로 위험자산 투자를 해야하지만, 높아진 주가 수준으로 위험도 커진 상황. 이럴 때일수록 자산관리와 주식투자에 대한 공부 필요



주식시장 투자전략

1. 코로나 이후의 자산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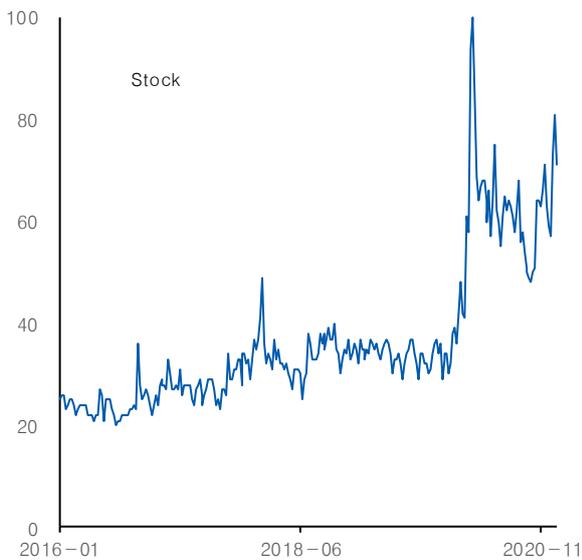
코로나19로 일상 생활의 변화를 겪은 지 1년이 지났다. 우리나라 국민도 1차 대유행부터 3차 대유행까지 겪었고, 개발될 것 같지 않았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는 비자발적인 비대면 상황을 강요했고, 이는 우리 일상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구글의 검색어는 전세계 일반인의 관심을 알 수 있는 지표이며, 이는 구글 트렌드로 나타난다. 구글 트렌드는 0부터 100까지로 표시된다.

팬데믹 초기에는 Covid19 검색이 최고수준까지 올라갔으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나서 검색 수준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Untact는 투자 이슈로 부각되면서 10월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검색어에 대한 관심은 검색이 크게 늘어났다. 'Stock', 'ETF,'Bitcoin' 등 투자 자산에 대한 검색이 증가 추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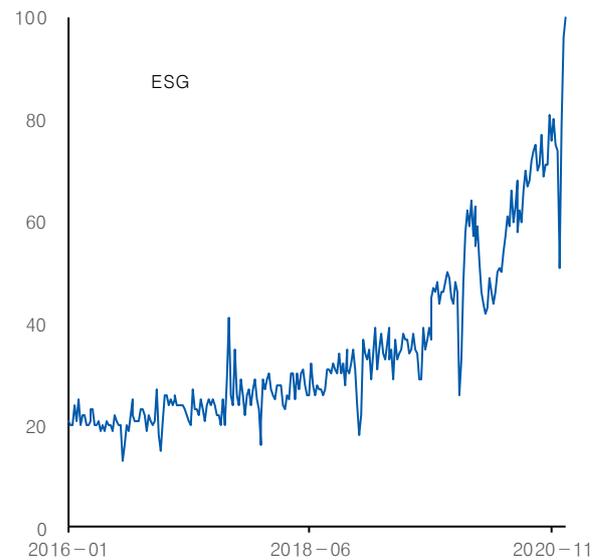
투자에 대신 관심이 확대되면서, 검색어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Dividend(배당)', 'ESG(사회책임)', 'IPO' 등 좀 더 세부적인 검색어가 하반기에 부각되고 있다.

[차트1] 'Stock'검색, 코로나 19 이후 크게 증가(구글트렌드)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ESG'검색,코로나 19 이후 크게 증가(구글트렌드)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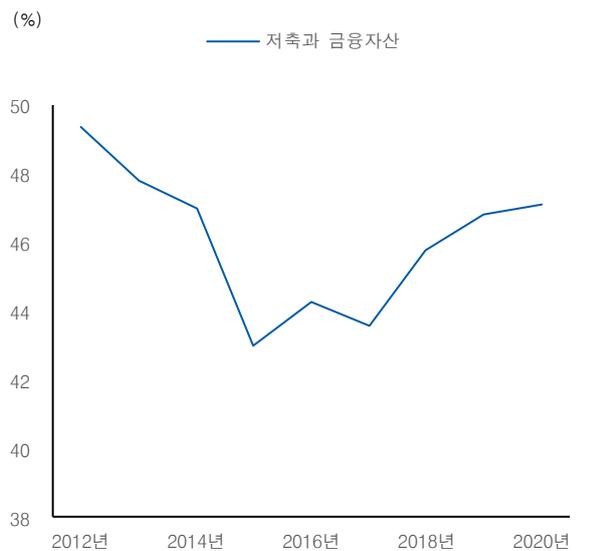
2.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하는 이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자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저금리상황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저금리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예금금리는 자산 증식보다는 자산 보존에 의미가 있을 정도로 낮아졌다.

매년 한국은행에서 조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저축과 금융자산'에 대한 의향이 2016년 이후 높아지고 있다. 금융자산을 선택할 때 주식자산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주식 자산을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면, 주식 직접투자 의향은 2014년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주식 자산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이 늘어나는 것이 2020년 주식 자산의 폭발적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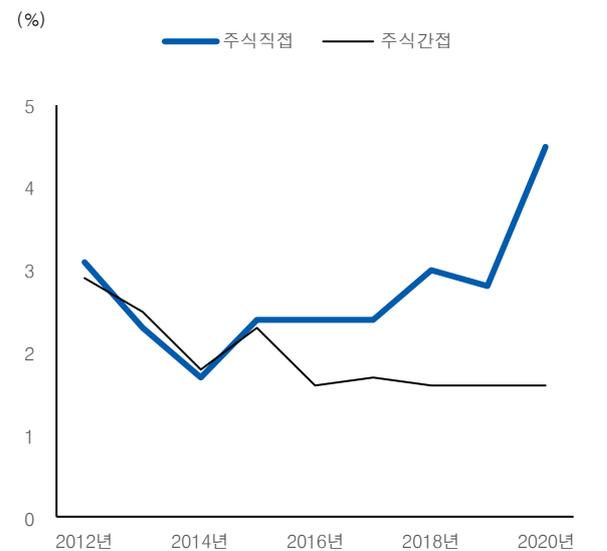
저금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3~4년전부터 퇴직연금에서도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은 가입자들에게 큰 고민거리이다. 투자자들은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주식 자산의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TDF 도입 등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차트3] 여유자금 발생시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 선호 비율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ESG'검색,코로나 19 이후 크게 증가(구글트렌드)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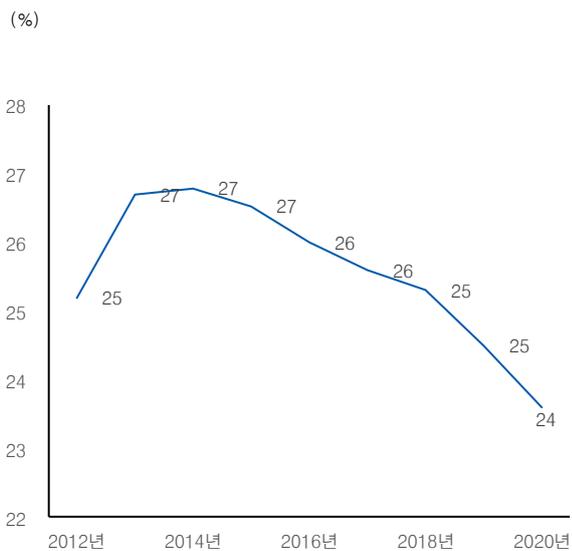
3 자산 가격 상승은 주식투자 필요성 확대시킴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으로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은 2014년 이후 계속 내려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 축소는 금융 자산이 확대될 시점이 다가온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큰 자금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는 예측을 한다. 투자에서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 환경 하에서 안전자산 투자는 더 이상 매력이 크지 않다. 게다가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올라서, 예전에 자산을 구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산 가격 격차를 크게 느끼고 있다. 자산 격차는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더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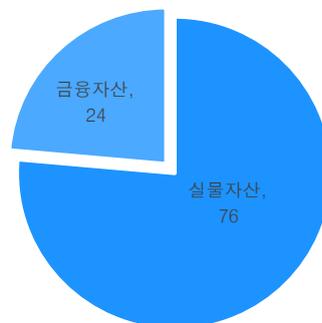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주식 자산은 밀레니엄 세대를 중심으로 대중화되었고, 이런 트렌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식 자산은 변동폭이 큰 위험자산이며, 지금의 높은 주가 수준에서는 이전보다도 위험도 커졌다. 이전보다 위험이 커진 만큼, 자산배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투자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

[차트5]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금융자산 비중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24%가 금융자산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